

# 고3 등 '생애 첫 투표'... "소중한 한표로 미래 바꿔야죠"

광주·전남 '새내기 유권자' "이런 후보 뽑겠습니다"

친구들과 선거 공보물 보며 논의 "지역 인구 소멸 적극 대응하고 학생 공감 공약 제시 후보 선택" 대학생들은 취업·경제 정책 관심 "정치, 우리 삶 가까이 있는 것" 실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광주·전남 '새내기 유권자'들은 고민이 깊다.

처음 투표를 한다는 설레임도 있지만, 직접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일보 취재진은 광주·전남 새내기 유권자 5명에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기준에 대해 들었다.

청소년 유권자들은 학생이 공감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를 뽑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남구 동성고에 재학 중인 김상영(18)군은 "더 나은 교육 정책을 내놓는 후보를 뽑겠다"고 전했다.

김군은 "청소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하고 좋은



석산고 3학년 구준석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후보를 뽑겠다"며 "우리 지역을 위해 누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지 꼼꼼히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을 위한 공약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는 광주시 남구 석산고 3학년 구준석(18)군은 "무엇보다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놓는 후보를 뽑겠다"고 밝혔다.

구군은 "선거 며칠 전부터 지역 후보들의 공약을



무안고 3학년 임현진



순천대 1학년 장운우



동성고 3학년 김상영

찾아보고 비교해봤는데 후보들 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다"며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웃어보였다.

저출산·고령화로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역 인구 소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후보를 뽑겠다는 학생도 있었다.

무안군 무안고 3학년 임현진(18)군은 "우리 지역에 또래 친구들,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지는 걸 느낀다"며 "농산어촌에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내놓는 후보에게 관심이 간다"고 귀띔했다. 임군은 또 "범죄경력이 없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생 첫 투표에 나선 대학생들도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며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취업을 걱정해야 하는 대학생들은 일자리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전남대 의류학과 김동혁(20)씨는 "요즘 취직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자리와 관련된 공약을 내놓는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다"고 했다. 김씨는 "나의 한 표는 작은 한 표이지만 여럿이 모이면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변 친구들과 함께 투표하러 갈 예정이라고 했다.

순천대에 다니는 장운우(20)씨도 "경제"를 선택의 이유로 꼽았다.

장씨는 "성인이 되니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체감된다"며 "침체된 경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한다"고 했다. 장씨는 또 "곧 입대해야 하는 만큼 외교와 국방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내기 유권자들은 "정치가 우리 삶 가까이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며 "정치와 선거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 이뤄지면 좋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대 1학년 김동혁

학교에서는 현실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유권자니까 투표해'라는 식이라 당황스럽다는 것이다.

고교생 유권자들은 "대부분 친구가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살펴보는 등 주권 실현 의지를 보였지만, 배경지식이 부족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와 지자체의 차원에서 현실 정치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분리배출로 지구 살려요"

9일 광주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탄소중립을 통해 지구환경 살리기 일환으로 모은 일회용 투명 페트병을 인공지능 무인회수기에 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대·조선대 의대 일단 15일부터 수업 재개

의정갈등 속 집단유급 막기 고심 학생 복귀 여부 보고 다시 논의

100여명이 휴학계를 제출하고 학교로 돌아오고 있지 않지만, 전남대와 조선대가 15일부터 의대수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다만,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발길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재차 학

사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9일 전남대와 조선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의과대학 수업이 재개된다.

두 대학은 개강은 했지만 학생들이 집단 휴학을 함에 이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일정을 두 차례 연기했다. 일단 두 대학은 현재 상황을 주시하면서 연기한 학사일정을 15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16곳은 이미 수업을 개강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남대는 학생들의 복귀 여부를 지켜보고 한차례 더 연기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달 25일까지 등록금 환불이 가능하고 휴학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급 확정이 되는 26일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는 점에서도.

이에 11~12일 사이 전남대 의대 교수들은 교수회의를 통해 학사일정 연기를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감방 동기' 강도 도운 40대 징역 5년 선고

범행 대상 물색하고 장비 제공

강도 범행 대상을 일당에게 추천하고 범행 장비를 제공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특수강도방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고양시에서 발생한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 피의자들에게 범행대상을 추천하

고 차량과 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0년 6월께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키는 중계기 관리책을 모진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교도소 복역중에 알게된 '감방 동기' 2명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대전 지역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전 서울 등

에서 범행을 저지르고자 하자 납치행각에 사용할 승합차 한 대와 휴대전화 3대를 제공하기도 했다.

감방 동기들은 결국 지난 2014년 4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에 불출석하고 장기간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이스 피싱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직접가담하지 않아 방조범에 해당하지만 특수강도 범행에서 역할이나 가담정도가 공동정범에 가까울 정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